# 시군 농기센터, 청소년 체험장 변신

## 47만㎡ 논밭 활용 농가 교육장 등 조성
## 틈새 소득작물·신품종 실증시험단지도

전남지역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가 교육장과 청소년 체험장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12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2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 47만여㎡의 시범포장(논밭)을 활용, 농가 교육장과 학생·일반인의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각 기술센터가 운영중인 시범포장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확대하거나 새롭게 조성하는 등 그동안 농가기술교육 중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신품종 농작물을 비교 전시할 수 있는 포장(圃場)과 새로운 틈새 소득작물, 신품종 도입에 따른 실증시험 단지가 조성된다.

또 영농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연구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미생물을 자가 배양하고 실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 설비도 설치·운영된다.

도 농기원은 실증 시범포를 평균 3300~6600㎡로 조성하고 논과 밭이 40%, 온실하우스를 20% 비율로 설치하도록 했다.

사업비는 기술센터당 1억~2억원 가량 들 예정이며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시범포장은 농민과 농업 관계자 등의 현장견학이나 교육 실습장, 청소년 체험장 등으로 활용된다.

여수농업기술센터는 난지식물원과 곤충사육장, 순천은 과수 품종보존 및 체험장, 광양은 허브·아열대과수를 중심으로 한 테마관, 곡성은 블랙초크 베리, 체리전시 포장, 장성은 미니사과 포장 등이 조성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김종국 생명농업기술과장은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이 농가에는 교육장으로,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최서남단 가거도 2구 승합차 달린다

한반도 최서남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2구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승합차가 생겼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보건진료소, 학교, 육지로 오가는 여객선이 떠나는 선착장이 있는 가거도 1구까지 2시간 남짓 걸어서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가거도 2구 주민들을 위해 한 외국계 회사의 지원으로 12인승 승합차가 배치됐다.

2구에는 유치원, 학생, 중

### 외국계회사 12인승 기증
### 학생·주민 등 불편 해소

학생 등 학생 8명과 독거노인 등 13명 등 모두 21명이 살고 있으며, 차가 없어 일부 학생은 매달 10만원 정도를 내고 1구에서 하숙하기도 했다.

주민 숙원 지역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의 힘이 컸다.

이 의원은 사회환원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 관계자를 만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마을 대표 등을 만나 어려운 사정을 듣고 12인승 승합차를 기증했다.

박재원(47) 가거2구 이장은 12일 "승합차가 생겨 학생과 초고령의 주민들이 험한 길을 걸어 오가는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지난해 전통 장 담그기 체험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전통된장 명인으로부터 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통 장 담그기 체험하세요

### 전남도농업박물관 17일 행사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전통 장 담그기 체험행사'를 오는 17일 박물관 야외 초가마당에서 연다.

참가 대상은 전통 음식문화에 관심있는 가족단위 및 일반주부 등이다.

신청은 16일까지 전화(061-462-2796~9)나 팩스(061-462-2795), 이메일(mh3812@korea.kr) 등을 통해 참가자 대표 성명·연락처·참가자 수 등을 알려주면 된다.

참가비는 개인당 3000원이며 박물관 입장료는 무료다. 참가자는 개인이 사용할 앞치마와 고무장갑 등을 준비하면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강진 전통된장 명인 백정자 여사의 장 담그기 이론 교육 및 시연 등이 펼쳐지고 참가자들이 직접 장 담그기 전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주요 체험 내용은 초가 입구 사립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 흙을 뿌린 다음 옛 방식대로 장고사(醬告祀)를 지낸 후 장 담그기에 쓰일 장독에 짚불을 피워 소독과 세척을 하는 전 과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여수, 올 관광객 1000만명 유치키로

### 내일 서울서 설명회

올해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수시가 14일 서울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한국관광공사, 철도공사, 수도권 여행업체 관계자 약 150여명을 초청해 '2013년 여수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여수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홍보 동영상 상영, 2013년 여수관광 프레젠테이션, 초청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 관광설명회를 통해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갖춰진 고급숙박 업소 등 관광 인프라를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광호텔과 지역 여행사 측도 이번 설명회에 참가시켜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박람회 개최 후 서울·경기 등에서 여수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박람회를 통해 잘 갖춰진 인프라를 자세히 안내하고, 특히 순천 정원박람회 관람객을 여수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달 28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여수 홍보관을 운영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순천·나주·장성 광역거점센터

# 친환경농산물 판매 '효자'됐다

### 학교급식 지난해 매출 282억

전남도가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등을 위해 운영중인 광역거점센터가 친환경농산물 판매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 나주, 장성 등 3곳에서 운영중인 광역거점센터의 지난해 매출액이 282억원을 기록했다. 거점센터를 처음 운영한 2011년에는 126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45%는 센터가 소재한 시·군 학교급식에, 나머지는 서울 지역 등 다른 곳의 학교급식 공급으로 올린 매출이다.

이는 거점센터가 단순히 지역 학교급식 공급 역할을 넘어 전남 친환경 농산물의 다른 지역 판매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출 증가에는 전남도의 해요소 중점관리(HACCP) 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지원이 주효했다.

거점센터 인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른 지역 농산물의 사용 자제 등도 한몫했다.

명창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학교급식 광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대규모 학교급식 수요를 맞출 계획"이라며 "이 센터가 식생활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급식 지원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역거점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집하·선별·가공· 배송 등이 이뤄지며 저온저장고 등 각종 설비가 갖춰져 있다. /오광록기자 kroh@

# "젓새우 많이 잡히게 해 주오"

### 내일 임자도 전장포풍어제

전장포풍어제가 신안군 임자도 전장포 일대에서 전장포 어촌계 100세대 200여명의 주민과 어선 60척이 참가한 가운데 14일 열린다.

풍어제는 바다를 낀 해안지방에서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며 드리는 제사로, 엄격한 유교식 제사와 달리 육지 또는 바다위에서 무당이 춤과 노래를 곁들인 굿을 하여 제사를 축제분위기로 이끈다. 전장포풍어제도 어촌계원들을 포함한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축제로 진행되고 있다.

전장포에서는 지난 1995년 정부의 어선감척사업 전후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후 마을주민들의 노력으로 풍어제를 복원하면서 격년제로 제를 지내오고 있다. 풍어제는 출어기를 앞둔 정월대보름 전후로 어촌계와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어선 및 어로기술의 발달로 출어기가 앞당겨져 풍어제도 2월 중순께 열린다. 전국 젓새우 어획고의 60%를 차지하는 임자도 전장포 일대는 수중에 모래 등이 많아 해조류의 서식과 어류산란장으로, 산란을 마친 어류의 먹이가 되는 새우의 서식지로 유명한 곳으로 일찍부터 새우잡이 어장으로 각광을 받아온 곳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1% 저리 농업정책자금 신청을"

### 전남도·시군서 2% 부담

전남도는 농가에 대출하는 농업정책자금(200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나 산림조합에서 대출받은 정책자금 대출 이자 3% 가운데 전남도와 시군이 2%를 부담하고 농민은 1%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1억원을 대출받은 농업인은 연간 200만원, 최대 3년간 6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준다.

이 대출은 영세 농업인과 자본금 3억원 이하의 농업법인,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벤처농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된다.

농협, 공무원 등 별도의 직업이 있거나 임대와 위탁 등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NH농협은행 시군지부, 산림조합, 지역농협을 거친 후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